



산수유 활짝... "봄치녀 제~ 오시네" 봄 기운이 완연해진 14일 구례 산동면 산수유마을에서 상춘객들이 활짝 핀 산수유꽃 사이에서 봄날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산수유마을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친환경차 선도도시 등 24개 과제 43조 전남도, 해양수산·관광지구 등 60개 85조 규모

19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각 정당·후보들에 건의할
지역 공약 과제 확정
공약 세일즈 활동 나서기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1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선도 도시 조성 등 7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총 43조6878억원 예산 규모의 공약과제를 확정했고, 전남도는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등 85조원 예산 규모의 지역 공약과제 60건을

확정했다.

광주시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친환경 자동차·에너지 선도도시 조성(5조8600억원)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산업 중심 도시 조성 등 5개 프로젝트 6조6400억원 ▲45억 아시아인이 찾는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등 4개 사업 6조9912억원 등이다.

또 ▲지역통합과 통일시대 거점도시 조성 등 3개 프로젝트 17조6134억원 ▲사람 중심의 휴먼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 3275억원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및 정신계승 사업 ▲기술융합 4차 산업혁명 메카 조성 7700억원 등이다.

광주·전남 공동 공약 과제는 전라도 전역 기념 상징공간 조성, 영산강 권역 특화개발 및 문화유산 세계화,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 7개 프로젝트

7조297억원도 포함했다.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미래 전남발전의 동력이 될 핵심공약 20개와 지역발전 분야별 정책과제 32개, 광주·전남 상생공약 8개로 구성돼 있다.

주요 핵심공약은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원아시아(One Asia) 슈퍼그리드 구축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국립백산·면역치료연구원 설립을 통한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 ▲다도해 섬의 한국대표 관광명소화 인프라 확충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등 20개다.

이 가운데 17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서울~제주 고속철 건설 사업 등에는 민간자본 투입 여지도 있어 사업별로 구체적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국비 등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또 새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됨

에 따라 지역현안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지역발전 분야별 정책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지역발전 분야별 정책과제는 미래신산업, 농어촌 경쟁력, 휴양·관광·문화, 정주환경, SOC 등 5대 분야 32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발전 중심의 대선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약 세일즈'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이 미래다-나미야상담소 ▶18면
반갑다 야구야-KIA 흥런 평평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안철수·손학규·박주선 3파전

총 6명 등록...천정배 불출마

4월 5일 후보선출 놓고 파열음

14일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마감 결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자, 박주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총 6명이 등록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천정배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26일 대선 출마에 나선지 두 달 반 만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 국회의원장과 양필승 로컴 사장, 김원조(세무사), 이상원(농업경영인)씨 등이 이날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경선은 안철수·손학규·박주선의 3강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제가 부족하여 경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번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원해 주셨던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말씀과 함께 국민의당 대선 승리, 개혁정부의 창출과 소외된 호남의 권익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가 대선 도전을 중도포기했지만 박주선 국회의원장이 이날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박 부의장은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조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박 부의장의 참여로 국민의당 경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호남 의원들이 어떤 선택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경선에서 현정 투표가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구당 위원장들의 조직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경선 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 중앙선관위의 다음달 5일 대선후보 선출 결정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여견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당 선관위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의장의 감정 대립 양상도 나타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년의 기다림... 세월호 4월 5일 인양

소조기에 맞춰 첫 시도

10일까지 목표 실행으로

오는 4월 5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처음으로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세월호 인양 첫 시도가 유력하다고 14일 밝혔다. 탑승객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내고 진도 맹골수로 인근 해상에 침몰한지 3년 만이다. <관련기사 6면>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 측은 세월호 인양을 위한 물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달 5일 소조기에 맞춰 인양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양 작업은 수면 아래 40m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선체를 물 위 12m까지 들어 올린 후 반 잠수식 선박에 싣는데 3일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늦어도 10일까지는 목표 실행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중국에

서 출발, 지난 6일 사고해역에 도착한 책깁바지선 2척과 세월호 양끝을 연결하는 작업을 지난 12일 마무리했다. 이후 세월호 선체에 설치해둔 리프팅빔에 연결했던 인양용 쇠줄 66개를 각각 두 바지선에 절반씩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쇠줄 연결 작업에 1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인양 준비를 마치고 다음 물살이 잔잔해지는 5월께 첫 인양을 시도할 예정이다. 인양이 성공하면 절반 정도 물에 잠기는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올려 87km 떨어진 목표 실행까지 옮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세월호를 열고 목표 실행으로 이동할 반잠수식 선박이 사고현장으로 올 예정이며, 날씨 등 작업 환경이 따라 준다면 다음달 5일 세월호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 3. 28(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광주

2021년까지 3,030억원 투입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자동차산업 전용단지 조성
- 선도기술지원센터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 친환경차 관련 핵심부품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노사관계·적정임금·노동시간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광주광역시
GWANGJU CITY